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08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6월 11일 (음력 5월 8일) 수요일

'6·10 촛불' 전국 100만 인파

미 쇠고기 반대 동시 집회 … 광주·전남 4만여명 참석

6·10 항쟁 21주년인 10일 서울·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최대 100만명의 기록적인 인파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쇠고기 수입 문제 외에도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쏟아져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6·7면〉

전국 1천7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10 고시 철회 · 즉각 재협상 및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10일 오후 7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6·10항쟁 21주년 기념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촛불 집회에는 지금까지 광주에서 열린 촛불 집회중 가장 많은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촛불집회는 시국자유발언, 평화대행진, 약식 문화제, 결의문채택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집회가 끝난 뒤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사까지 항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민주노총·전교조·대학생·화물연대 등이 별도로 집회를 한 뒤 금남로로 행진했다. 목포·여수 등 전남도 내 18개 시·군에서도 1만여명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날 대규모 촛불시위에 맞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함께 열려 양측간 크고 작은 마찰이 밤 늦게까지 빚어졌다.

경찰은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총동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새벽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광화문 사이 양방향 4개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를 대형 컨테이너박스로 차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남로 3만 촛불 10일 저녁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6·10항쟁 21주년인 이날 집회에는 3만여명의 시민·학생·농어민 등이 참가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내각·青 비서진 쇄신 폭 커질 듯

한승수 총리 등 내각 일괄 사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민심수습을 위한 국정 쇄신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새 정부 출범 107일 만에 '강부자' '고소영' 진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물갈이하는 등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각계 원로 등과 만나 수렴한 민심을 토대로 인선 구성안을 가다듬은 뒤 빠르면 12일께, 늦어도 16일까지는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4~5명 이상의 장관의 사표를 선별 수리키로 하고 개각을 위한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총재를 국무총리에 기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진용도 대폭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핵심 측근이자 각종 인사를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을 퇴진시킨 데 이어 류우익 실장을 포함해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각이 인적 쇄신을 앞둔 이 대통령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르면 12일께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큰 폭의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亞문화전당 건립사업 첫 삽

문화수도 조성 본궤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10일 첫삽을 뜨면서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관련기사 4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이날 오후 문화전당 부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무스타파 카마리 주한 튀니지대사, 문순태 조성위 부위원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을 가졌다.

유인촌 장관은 축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으로 문화의 겨자씨가 뿌려진 광주가 문화예술인들의 열린 마음과 열정으로 풍성히 채워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유 장관과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의 간담회는 유 장관이 내각 총 사의에 따라 급거 상경하면서 취소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화물연대 파업 돌입

삼성광주공장 운송 중단

전국화물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10일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 우려됐던 물류대란이 현실화됐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삼성광주공장의 수출 운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화물연대 전남지부도 파업시기를 13일 이전으로 앞당길 계획이어서 여수산단과 광양항 등 전남지역 주요 수출 전진기지의 긴장감도 높아가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10일 광주시 하남산단 5번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컨테이너지회 등 일부 지회가 이날 오후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지부는 "삼성광주공장의 수입 및 내수물량과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의 수출 전자제품을 운송하는 광주지부 1지회 소속 컨테이너 120대와 대형 화물차 200여대가 운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파업을 선언한 대형 화물차 200여대 중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단 30여명으로 비조합원들까지도 총파업에 가세하고 있어 수출업체들은 대체 운송차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광주공장 측은 "파업 직후 대체 운송수단을 일부 투입해 손실을 입지는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하루 최대 250여억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또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물류자회사인 삼성로지텍으로부터 내수 물량을 수주하는 삼삼로직스 소속 화물차 기사 40명 중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가입한 20여명이 회사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삼성로지텍은 지난 2006년 총파업 당시 하청업체인 극동컨테이너 측과 화물연대 사이에 운송료 인상 등을 둘러싼 장기 대립이 있었던 업체로, 이번 파업이 하남산단 및 광주지역 다른 화물차들의 산발적인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